

연중 제9 주일 [가해]

♣ 참고 : 이 글 중에 밑줄이 그어진 성경 구절이 나오면, 학습자들이 그 구절을 찾아 읽을 것을 권장한다.

제1 독서 - 신명기 11,18.26-28.32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신명기(book of Deuteronomy)는 평신자들을 위하여 모세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며, 레위기(book of Leviticus)는 레위들, 즉 사제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 신명기의 중심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느님과 맺은 거룩한 계약(Covenant)의 관점 안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 책은 하느님과 그의 계약과 관련된 축복들과 저주들을 나열함으로써 계약을 공포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지각색의 역사적 사건들의 성공과 실패를 하느님에 대한 충성(fidelity)과 경시(disregard)의 관점에서 또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가해 사순 첫 번째 주일 미사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주어졌던 유혹에 대하여 들으며 또 신명기의 단락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들 유혹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듣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유혹들에 어떻게 실패하였으며 또 올바른 대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18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에 새기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이 말들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져, 오늘날 일부 유대인들이 성구갑(phylactery)들을 착용하는 이유이다. 예수님의 시기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성구갑들을 머리와 팔에 착용하였다. 머리 성구갑은 10-15 밀리미터 정도(1/2인치 정도)의 폭을 가진 양피지(parchment, 羊皮紙)로 만들어진 작은 캡슐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은 네 개의 빈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공간들에 율법(Law)으로부터 택한 다음의 네 개의 구절들이 넣어졌다: 탈출기 13,1-10(the Matzoth Torah, 누룩 없는 빵에 관한 세칙), 탈출기 13,11-16(the Passover Torah, 만아들과 만배의 봉헌 세칙), 신명기 6,4-9(the Shema, 유일신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신명기

11,13-21(다른 잡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팔의 성구갑은 단 하나의 공간만을 가졌으나 하나의 두루마리(scroll)에 쓰인 이들 네 개의 같은 구절들을 담고 있었다. 머리의 성구갑은 이마의 중앙에 매달려 있도록 머리 주위에 끈들로 묶여졌다. 팔의 성구갑은 심장의 위치에 매달려 있도록 왼쪽 팔의 상박에 고정되었다.

26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27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28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하느님과의 계약의 형식(covenant formula)에 있어, 축복들과 저주들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궁극적인 제재 규약(sanctions)들이었다. 계약이 선서될 때에, 계약의 당사자들은, 선서라는 행위에 의하여, 그들 자신들이 축복들과 저주들을 떠맡게 된다.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축복과 저주는 그들 앞에 놓였으며, 모세는 확실하고 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32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모든 규정과 법규를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이 구절은, 그 안에서 그들이 하느님께 묶여있게 될, 계약의 심각함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다.

제2 독서 - 로마 3,21-25.28

로마서 3,21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새로운 절로 시작하는데, 이 절은 구원(salvation)의 드러남이며 곧장 8,29까지 확장된다. 이 새로운 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계약 관계에 맞게 이스라엘이 생활할 수 없음을 서술하고 있는, 로마서 1,28과 대조를 이룬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분별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로마 1,28).

21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

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도착한 예정되었던 시기인 새 계약(New Covenant)의 시기에, 하느님의 속성이 드러났는데, 이 하느님의 속성은 보복적인(vindictive)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낌없이 베푸시는 구제(salvific, 救濟)의 의로움입니다. 이 선물은,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관대함으로부터 주어졌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율법과 예언서들이 가리키고 있던 바로 그 선물이다.

2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 대림 제4주일에 로마서 1,5의 학습에서 배웠듯이, 성 바오로는 ‘믿음(faith)’이라는 단어에 대한 매우 명확한(express) 정의를 가지고 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어 처음으로(로마 1,5) 그리고 마지막으로(로마 16,26) 언급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언급들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obedience of faith)’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범위를 설정해 주는 문맥(context)이다. 바오로는 믿음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개인적 헌신(personal commitment)과 순명(obedient submission)을 끝으로 하는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고 있다(conceive). 마찬가지로, ‘신앙(belief)’은 단순히 어떤 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신앙’은 사실은 그러한 개인적 헌신과 순명을 뜻한다.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ent, 1543-1563년)는 ‘믿음’을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듯이 ‘인류 구원의 시작’으로 정의하며 구원의 은총(grace of salvation)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간의 의지가 그러한 믿음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De iustificatione, chap. 8, can.9). 이 정의는 로마서에서 성 바오로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드러나심(revelation)이라는 하느님의 정의(righteousness) 이외의 무엇이 올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오래 전에 하느님에 의하여 약속되었던 선물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서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를 제외한) 사도 바오로의 전체 서간에 대한 (익명) 주석자(The Ambrosiaster, 366-384년), *Commentaries on Thirteen Pauline*

Epistles Romans 3,22].

“어떤 사람이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기여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지요?’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바오로는 우리가 사실은 그것에 많은 것을 기여함을 보여 준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제공한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Saint John Chrysostom (391년), *Homilies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7].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시편 14와 이사야 59,4에서와 같이 총체적인 인식(collective sense)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내가 파티를 마련하였는데 전체 이웃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이 표현은 이웃에 있는 각각의 개인 모두가 거기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웃으로부터 많은 수의 대표자격인 군중들이 거기에 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 특별한 절은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고(immaculate) 또 본죄 없는(sinless) 상태를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그러나 시편 14에서 분명한 것과 같이, 심지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를 통하여 주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이 좀 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으며 성부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십자가라는 제단 위의 그리스도라는 속죄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구속의 계획(redemptive plan)을 가지고 계시는데,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획득하게 된 구속에 참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성모 마리아의 경우에 있어 이것은 그녀의 수정(conception) 순간에 그리스도에 의한 선행적 방식(preemptive manner)으로 수행되었다.²⁰⁾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롭게 됨(justification, 의화)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무상의(gratuitous) 선물로서, 이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freely) 주어지나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대가로써 우리가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거저 주어지나 우리가 당연히 받을 만하지(deserve)는 않은 선물이기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포

20)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모 마리아의 선행구속(pre-redemption)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8일)’ 해설의 입문을 보라.

기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데, 이 생명은 은총(grace)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propelled) 또 사람 측의 자유롭고 또 능동적인 협조를 요구한다. 은총이 하느님의 무상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사람이 은총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25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속죄의 도구(expiation)는 계약의 궤(the Ark of the Covenant)의 뚜껑, 즉 속죄판(즉, 계약의 궤의 순금 뚜껑)이었는데, 계약의 궤는 성전(Temple) 안의 지성소(the Holy of Holies)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탈출기 25,17-22). 그것은 순금의 금박(beaten gold)으로 만들어졌으며 양쪽 끝에는 서로 마주 보는 커룹(cherub) 두 개가 있었다. 속죄판은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기능은 하느님의 왕관으로서의 역할이었으며(시편 80,2;99,1) 다른 기능은 속죄일(Day of Atonement, 히브리어로 Yom Kippur)에 거행되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통하여 하느님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는 역할이었다(레위기 16). 속죄일에 대사제는 대사제 자신과 백성들의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희생된 동물들의 피를 속죄판에 뿌렸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이렇게 성전 희생제물 안에서 예시되었으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Lamb of God, 천주의 고양)이라고 지적하였을 때에 공시되었다(요한 복음서 1,29). 마태오 복음서 20,28에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희생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당신의 성혈에 의한 속죄의 도구(expiation)’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생각하는 각 개인에게 그 스스로가, 당신의 구성원들이 겪는 모욕과 고난(mortification)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속죄의 희생제물(propitiation)이 될 것을 가르치신다.” [넛사의 성 그레고리오(Saint Gregory of Nyssa, 375년경), *On Perfection*].

28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할례, 동물 희생제물, 음식물에 대한 제한 등의) 율

법에 따른 행위에 의하여 의롭게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그릇되게 서술하였던 오직 믿음 만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티아 5,6)이며, 그 사람 고유의 공로(merits)들에 대한 주제넘은 자신감(presumptuous self-confidence)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것을 확고하게 기꺼이 수용하는 믿음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로들 안에서 서로의 희망과 보조를 맞추게 하고 또 각자의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 새 계약(New Testament)은 구약(Old Testament)의 완성을 의미하기에, 이 경우에 있어, 모세의 율법은 그 동안 줄곧 가지지 못하였던 완전함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다.

“바오로는, 예를 들어, 할례를 하거나, 신월제(new moon festivals, 新月祭)들을 지키거나 혹은 안식일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등의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함 없이도 이방인이 의롭게 됨에 대하여 어떠한 이방인이란도 반드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히브리서를 제외한) 사도 바오로의 전체 서간에 대한 (익명) 주석자(The Ambrosiaster, 366-384년), *Commentaries on Thirteen Pauline Epistles Romans* 3,28].

복음 - 마태오 7,21-27

지난 주일의, 즉 연중 제8주일의 복음 말씀 독서의 입문에서 우리는 마태오 복음서 6,19-34와 7,1-27이 예수님의 삶으로부터의 어록(collection of sayings)임을 배웠다. 제6장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말씀들은 일심불란(一心不亂, singleness of purpose)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제7장에 있는 말씀들 모두는 인지할 수 있는 주제의 일치 없이 모두 서로들 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복음사가 마태오는 이 말씀들을 분명히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루카 복음서에서 유사한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judging others, 7,1-5),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마라(casting pearls before swine, 7,6),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prayer and its answer, 7,7-11), 황금율(the golden rule, 7,12),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the narrow gate, 7,13-14),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genuine good works, 7,15-20),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복음 말씀인 주님의 뜻을 실천하여라(self deception, 7,21-23) 및 내 말을 실천하여라(hearers and doers, 7,24-27).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도 중에) 열렬하게 부르는 것과 카리스마적 선물(charismatic gifts)들을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사도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 바오로는 만약에 우리가 또한 사랑이 없으면 이들 선물들은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1코린토 13,1-3).

22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여기서 그날이란, 각 개인이 지상의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서게 되는, 즉 개별 심판(particular judgment)을 받게 되는 날이다.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23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양식의 배척(reprobation)은 시편 6,9로부터 오며, 이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의 거짓 제자(false disciples)들에게 향하게 된다.

24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 구절은 진실로 행위에 대한 하나의 도전인데, 그 이유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기는 하나 이 말씀들에 따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응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25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큰 주택들과 공공건물들은 기초들 위에 지어졌으나, 보통 사람의 거처(ordinary dwelling)는 그렇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 바오로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것은 홍수에 범람한 강인데, 이런 홍수는 언덕의 경사지들을 침식시킬 것이고 또 기반암(bedrock)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건물들은 그 아래의 흙들이 침식됨에 따라 쓸려나가게 될 것이다. 팔레스티나 지역의 겨울비들은 가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도들의 삶의 확실한 기초(foundation)를 제공하는 것은, 지식이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었으며, 이것 없이는 카리스마적 선물들이 헛된 것이라고 성 바오로가 말한, 사랑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다. 만약 우리가 어려운 시기들에 있어 굳건하게 맞서고자(stay strong) 한다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세련되기(refined) 위하여, 그리고 충실(loyalty)과 자제(self-denial)의 정신 안에서 우리가 살아 있기에 행하여야 하는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용하고 평온한 시기에, 기꺼이(with a good grace) 작은 모순들을 허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처신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기초를 내리게 되어, 그 결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건물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또 드러나는 모든 결점(cracks)들을 수리하게 될 것이다.

■ 3분 복음/교리 묵상

579. 성경에서 ‘주님의 기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2761-2764, 2774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테르툴리아누스), “가장 완전한 기도”(성 토마스 데 아퀴노)이다. 이 기도는 산상 설교(마태5-7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기도의 형태 아래 복음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²¹⁾

21) CCCC 579 성경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Our Father)’ 기도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CCC 2761-2764, 277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전체 신약 성경 복음서들의 요약”(테르툴리아누스)이며, “완벽한 기도”(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산상설교 중간에 발견되는(마태오 복음서 5-7) 이 기도는 기도문의 형식으로 신약 성경 복음서들의 핵심 내용을 제시합니다(엠크이 번역).

주: 교황청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위의 CCCC 문항들 및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제공 우리말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의 해당 항목들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http://ch.catholic.or.kr/pundang/4/a_ot_09_c2761.htm

581. 교회의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2776, 2767-2772

주님의 기도는 교회의 가장 뛰어난 기도이다. 세례성사 때 하는 ‘주님의 기도 수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하느님의 생명을 얻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한다. 미사의 성찬 전례에서, 주님의 기도는 그 완전한 의미를 드러낸다. 이 기도의 모든 청원들은 이미 실현된 구원의 신비에 근거를 두고,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기도는 성무일도의 주요 시간경들의 중요한 부분이다.²²⁾

22) CCCC 581. 교회의 기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CCC 2767-2772, 2776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즉 ‘주님의 기도’는 교회의 탁월한 기도입니다. 하느님 자녀가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기도는 세례성사(Baptism)에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handed o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완전한 의미는 성찬례(Eucharist)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 기도가 청하는 것들은 이미 완성된 구원의 신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기도의 청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시간경 전례(Liturgy of the Hours, 성무일도 전례)의 핵심 부분입니다(엠크이 번역).

주: 교황청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위의 CCCC 문항들 및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제공 우리말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의 해당 항목들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http://ch.catholic.or.kr/pundang/4/a_ot_09_c2767.htm

주: 해설서 본문의 오류수정 및 내용보강 자료들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서 제공될 예정이오니 본문 학습에 앞서 꼭 확인 바랍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update/a_ot_09.htm